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는가?: 맥락-기제-결과에 관한 리얼리스트 리뷰

이진선¹ | 박예은¹ | 변호연¹ | 최수환¹ | 김동하^{1*}

¹ 대진대학교

* 교신저자: 김동하
(dhkim@daejin.ac.kr)

초록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보호 종료 이후 주거·경제·관계·심리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 불평등과 사회적응 취약성에 직면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개입이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프로그램 이론으로 설정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맥락(context)-기제(mechanism)-결과(outcome)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리얼리스트 리뷰를 수행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 문헌 40편을 분석하여 CMO 요소를 개인, 개인 간, 제도·환경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회복과 자기효능감은 정서 안정으로, 사회적 지지와 신뢰 회복은 관계망 형성으로, 주거·경제 안정과 자원 연계는 생활 기반 안정으로 이어지는 주요 CMO 경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제도·환경 차원의 안정화가 개인 차원의 정서 안정과 자기주도성 회복을 촉진하는 경로와 관계 차원의 결핍을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계가 보완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반면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합 개입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고, 보호 종료 이후 장기적 사회적응 경로를 추적한 중단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지원 정책이 개별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방식을 넘어, 심리·관계·주거·고용 지원을 맥락에 따라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와 경로 기반 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자립준비청년, 전환기 적응, 사회적 지지, 자립지원정책, 문헌고찰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기존 연구는 어떤 맥락과 기제가 사회적응으로 이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주거·경제 안정, 사회적 지지, 심리적 회복이 함께 작동할 때 보다 긍정적인 적응이 나타났으며, 단일 프로그램보다 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이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립지원 정책은 경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심리·관계·주거·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 종료 이후의 장기적 적응 과정과 지원의 작동 조건을 추적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투 고 일: 2026. 01. 05.
- 수 정 일: 2026. 04. 29.
- 게재확정일: 2026. 05. 18.

I. 서론

만 18세에 이르러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던 청년은 보호 종료라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한다. 이 전환은 단순히 보호 체계에서 이탈하는 행정 사건이 아니라, 주거·경제·관계·심리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경험을 동반한다. 보호 종료는 곧바로 '자립'이라는 과제를 부여받는 순간이며, 이 과정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응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사적 분기점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는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care leavers)'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던 수동성과 낙인을 완화하고, 자립 과정을 하나의 역동적 경로로 이해하려는 정책 전환을 반영한 결과다(관계부처합동, 2021).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건강 격차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기 역경 경험, 불안정한 애착 관계, 반복된 상실과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이미 취약한 건강 궤적 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박신영 외, 2024). 이러한 조건에서 보호 종료라는 제도 전환이 더해질 경우, 기존의 건강 격차는 완화되기도 오히려 증폭될 위험에 직면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주거 불안정, 경제적 곤란, 사회적 고립과 맞물리며 상호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의 적응 실패로 환원되기보다 구조적 건강 불평등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한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8). 즉,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 환경 속에서 재생산되는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가 우울, 불안, 자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3). 보호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각각 24.0%와 15.8%로, 동일 연령대 일반 청년(5.3%)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 역시 일반 청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단순한 경제적 자립의 문제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전반의 취약성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호 종료 이후의 전환기는 이러한 위험이 누적되거나, 반대로 완충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으로 기능하며, 이 시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과 관계 단절은 이후 삶의 궤적에 장기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 지원, 보호 연장(만 24세까지) 등 제도적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관계부처합동, 2021; 보건복지부, 2025).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주로 생계 유지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어 왔고, 심리적 회복, 관계 형성, 사회적 소속감과 같은 사회적 건강 영역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고수안, 2023). 한국의 보호 종료 제도는 만 18세라는 획일적 연령 기준과 짧은 보호 연장 기간, 원가족 복귀를 전제하지 않는 완전 분리형 자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보호 기간을 만 21~25세까지 연장하며 점진적 독립을 지원하는 영미권 국가들(Stein, 2006)이나, 보호 종료 이후에도 가족 및 비공식적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Höjer & Sjöblom, 2014)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충분한 과도기적 지원 없이 즉각적인 완전 자립을 요구받으며, 이는 건강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자립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심리·관계·사회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입이 병행될 때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강현주 외, 2020; 이민영 외, 2023).

학술적으로도 자립준비청년 연구는 주로 양적 실태조사나 경험 기술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최보람, 이재림, 2024). 이러한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현실과 욕구를 가시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개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를 보였다(Lynch et al., 2021).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의 적용이 제한적이었고(van Breda & Reuben, 2025), 보건학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불평등이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경로를 통해 생성되고 강화되는지를 분석한 연구 역시 드물다(Dale et al., 2016).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주었으나,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제가 작동할 때 사회적응과 건강 결과가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연구의 설계나 질의 문제라기보다, 단일 연구가 갖는 제약에서 비롯된다. 양적 연구는 특정 집단에서 변수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동일한 지원이 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질적 연구는 경험의 의미와 과정을 깊이 있게 포착하지만, 맥락이 다른 집단으로 결과를 전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보호 유형, 지역사회 자원, 관계 경험,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복합성과 맥락 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연구의 심층성을 넘어 다양한 맥락에서 축적된 연구를 가로질러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자립준비청년 관련 연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누적되어 왔고, 2020년 이후 질적-양적 연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개별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통찰을 종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에 관한 통합된 이해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입 효과의 평균적 크기를 추정하는 메타분석이나 연구 결과의 경향성을 보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무엇이 효과적인가(what works)’에는 답하더라도, ‘왜,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가(why, for whom, under what circumstances)’라는 경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Pawson & Tilley, 1997).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처럼 맥락 의존성이 높고 작동 방식이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과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특정 조건에서 특정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여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새로운 문헌고찰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단일 차원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WHO(2008)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개인의 건강이 생활 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 정책 환경에 의해 구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개인, 관계, 제도, 사회문화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 유형, 제도 환경,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맥락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관계 경험이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사회적응과 건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과 결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다차원 관점에서 검토하고, 맥락(context)-기제(mechanism)-결과(outcome)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적응 경로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자원 활용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건강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이러한 맥락 조건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맥락과 기제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어떠한 결과로 연결되는가?
- 연구문제 4. 맥락-기제-결과 경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자립’을 보호 종료 이후 주거·소득·학업·취업 등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제도적 독립 상태로 정의하고(Del Valle et al., 2008), ‘사회적응’을 자립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정, 관계 형성, 사회적 역할 수행이 통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설정한다(Stein, 2012). 즉, 자립은 사회적응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자립과 관련된 조건과 경험은 특정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제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적응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과 전환기 적응

자립은 보호 종료 이후 단번에 달성되는 독립 상태라기보다, 보호체계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전환기 적응 과정에 가깝다. 국제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조기 성인기(premature adulthood)로 규정하기보다, 제도적·관계적 지원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확장된 전환기(extended transition)로 개념화해 왔다(Courtney et al., 2001; Stein, 2006).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립의 성패가 개인의 준비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지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역시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경제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보호 종료 이후 급격히 약화되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의 결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 기간 동안 형성된 관계가 단절되거나 제도 접근성이 불균형하게 작동할 경우, 주거·취업·정신건강 영역에서 불안정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Pinkerton, 2011; Stein & Munro, 2008), 이러한 경험은 전환기 조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고수안(2023)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을 분석하며 네 가지 핵심 경험을 제시하였다. 지역 및 시설 간 지원과 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시설 내 프로그램 질 차이에 따른 구직 기회의 불균형, 원가족 및 주보호자 교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자립에 대한 불확신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경제적 지원이 일정 수준 제공되더라도,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립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202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은 보호 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든직(2025)의 근거이론 연구에 따르면, 보호연장 제도는 단순한 보호 기간 확대를 넘어 자립 과정에서 작동하는 전환적 제도(transitional mechanism)로 기능한다. 보호연장은 주거 안정성 확보, 학업 재도전 기회 제공, 취업 준비 기간의 제도적 보장, 자기결정권 경험의 확대, 그리고 신뢰 관계의 연속성 유지라는 다층적 기제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실질적 자립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연장이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자립 준비의 질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은 개인의 결핍이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 보호 종료 이후 전환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사회적 조건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다. 이는 자립을 개인 책임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 전환 과정과 사회구조적 조건의 산물로 관점 전환을 요구한다.

2. 사회적응 이론과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사회적응(social adaptation)은 개인이 주어진 사회 구조와 규범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심리적 조정의 결과라기보다, 제도적 조건과 규범적 기대에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결과에 가깝다. Merton(1968)의 구조적 긴장 이론은 사회적응을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구조적 조건과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 간의 긴장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사회적응은 개인 내부의 조정 과정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산출되는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응을 주로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주거 안정과 같은

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자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불안, 사회적 낙인 경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같은 생활 경험과 과정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사회적응을 단일한 성취 결과가 아니라, 욕구 충족과 역량 형성이 단계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Maslow(1943)의 욕구 위계 이론은 생리적·안전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소속과 애정, 존중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사회적응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현재 자립지원 정책이 주로 하위 욕구 충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Nussbaum(2011)의 역량 접근은 사회적응을 '무엇을 소유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하며, 신체적 건강, 감정적 안정, 사회적 관계 역량이 균형적으로 형성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환기 적응을 설명하는 Schlossberg(1981)의 전환 이론 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개인의 적응이 상황(situation), 개인 특성(self), 사회적 지지(support), 대응 전략(strategies)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보호 종료라는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급격한 축소와 제도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적응 과정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 결과 동일한 정책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개인이 처한 맥락에 따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사회적응의 경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이론은 이러한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Silver(1994)는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하며, 연대, 전문화, 독점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을 통해 배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Levitas 외(2007)는 제도 접근의 제한이 사회참여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배제가 다시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경로를 제시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와 함께 제도적 보호와 관계적 지지로부터 동시에 이탈하는 경험을 하며, 이러한 다중적 배제는 사회적응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종합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개인 능력이나 적응 실패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환기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지, 제도 접근성, 그리고 개인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전개된다. 이러한 관점은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인 역량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기제를 통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통합: 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의 설정

이론적 검토를 종합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은 어느 단일 이론만으로 온전히 포괄하기 어렵다. 각 이론은 이 과정의 특정 측면—구조적 긴장, 전환기 심리, 역량 결핍, 사회적 배제—을 조명하지만, 이들을 아우르며 자립준비청년을 둘러싼 다층적 조건, 그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합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분석 틀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본 연구의 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으로 설정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개인의 발달과 적응이 미시체계(개인·가족·또래), 중간체계(기관 간 연계), 외체계(지역사회 자원·노동시장), 거시체계(문화·정책·사회적 인식)의 중층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분석에 적합한 이유는, 보호 종료라는 전환이 개인 차원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관계망의 단절, 제도적 지원의 공백, 사회적 인식의 편견이 동시에 작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층위별 조건은 자립준비청년이 놓인 맥락적 환경으로, 각 층위 내에서 자원이 인식되고 활용되는 방식은 적응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작동 기제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는 사회적응의 구체적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석 차원을 개인, 관계, 제도·환경의 세 수준으로 체계적

로 구조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기반 위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을 개인-관계-제도 수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하고,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적응 경로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탐색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사회적응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리얼리스트 리뷰(realist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였다(Pawson & Tilley, 1997; Pawson et al., 2005). 리얼리스트 리뷰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순히 '있다/없다'로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왜,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라는 설명적 질문에 초점을 두는 문헌고찰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개입이 일정한 조건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전제를 갖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과 달리, 정책과 프로그램이 복합적인 사회적·제도적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realism) 철학에 기반한다. 리얼리스트 리뷰는 이러한 작동 방식을 맥락-기제-결과(context-mechanism-outcome, 이하 CMO)의 관계로 분석한다. 여기서 맥락은 제도·정책 환경, 보호 유형,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같은 구조적 조건을 의미하며, 기제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개인이 자원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행동적 변화 과정을 가리킨다. 결과는 이러한 기제가 작동한 이후 나타나는 자립과 사회적응의 긍정적·부정적 변화로 정의된다.

리얼리스트 리뷰는 문헌 분석에 앞서 프로그램 이론을 설정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CMO 경로를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Pawson et al., 2005). 본 연구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프로그램 이론으로 설정하였다. 이 이론의 다층 구조는 자립준비청년을 둘러싼 맥락적 조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기제, 그리고 그 결과를 개인, 관계, 제도·환경의 세 분석 차원으로 구조화하는 데 기반을 제공한다. 이 초기 프로그램 이론은 문헌에서 CMO 요소를 식별하고 해석하는 분석 준거로 기능하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CMO 패턴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탐색하는 데 활용된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주거, 경제, 심리, 사회관계망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적인 복합 개입(complex intervention)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상 개입의 효과를 단일 지표로 환원하기보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어떠한 기제가 활성화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얼리스트 리뷰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경로를 CMO의 연쇄 작동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Pawson 외(2005)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① 연구 질문 설정, ② 문헌 검색 및 선정, ③ 자료 추출 및 품질 검토, ④ 자료 분석의 네 단계로 수행되었다.

2. 연구 질문 설정

본 연구의 중심 연구 질문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떠한 맥락 조건에서 어떠한 기제가 작동할 때,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이다. 이 질문은 사회적응을 단순한 성취 여부로 파악하기보다, 특정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기제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 맥락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둘러싼 제도적·사회적 조건을 의미하며, 보호 유형, 정책 환경,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기제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제공된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면화하며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지에 관한 심리적·행동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결과는 이러한 기제가 작동한 이후 나타나는 변화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 사회관계망 형성, 생활 기반의 안정과 같은 사회적응의 주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문헌 검색 및 선정

리얼리스트 리뷰에서 문헌 검색은 단일 키워드 조합에 의한 일회성 검색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론을 토대로 CMO 경로를 구체화하고 검증·보완해나가는 반복(iterative) 과정으로 설계된다(Pawson et al., 2005). 본 연구의 문헌 검색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 단계의 반복 검색으로 구성하였다.

1단계(이론 기반 초기 검색)에서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DBpia, ScienceON을 활용하여 검색 기간(2012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내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2012년은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점으로, 자립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분기점에 해당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12). 이후 2019년 자립수당 도입, 2022년 보호 연장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변화가 단계적으로 축적되었고(관계부처합동,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흐름 전반을 포괄하는 문헌을 검토하고자 검색 기간을 설정하였다. 검색어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칭하는 대상 용어군("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청년", "취약청년")과 사회적응 및 자립 경험을 나타내는 경험 용어군("사회적응", "사회통합", "사회정착", "적응행동", "진로준비", "사회참여", "인간관계", "자립생활", "자기공개")을 각 용어군 내 OR, 두 용어군 간 AND 연산자로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책 및 학술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자립준비청년'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문헌고찰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연구에서 사용된 '보호종료아동' 등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검색어를 구성하였고, 본문에서도 원문 맥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용어를 병행 사용하였다.

2단계(이론 주도적 심화 검색)에서는 1단계 문헌의 초록 및 전문 검토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론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CMO 패턴을 잠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맥락 유형(예: 시설 유형, 지역 자원 편차)이나 기제 영역(예: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인식)에 관한 문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주제를 구체화한 추가 검색어를 설정하여 재검색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 검색에서 심리적 기제에 관한 문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자기효능감", "자존감", "애착" 등의 용어를 대상 용어군과 결합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는 CMO 패턴이 포화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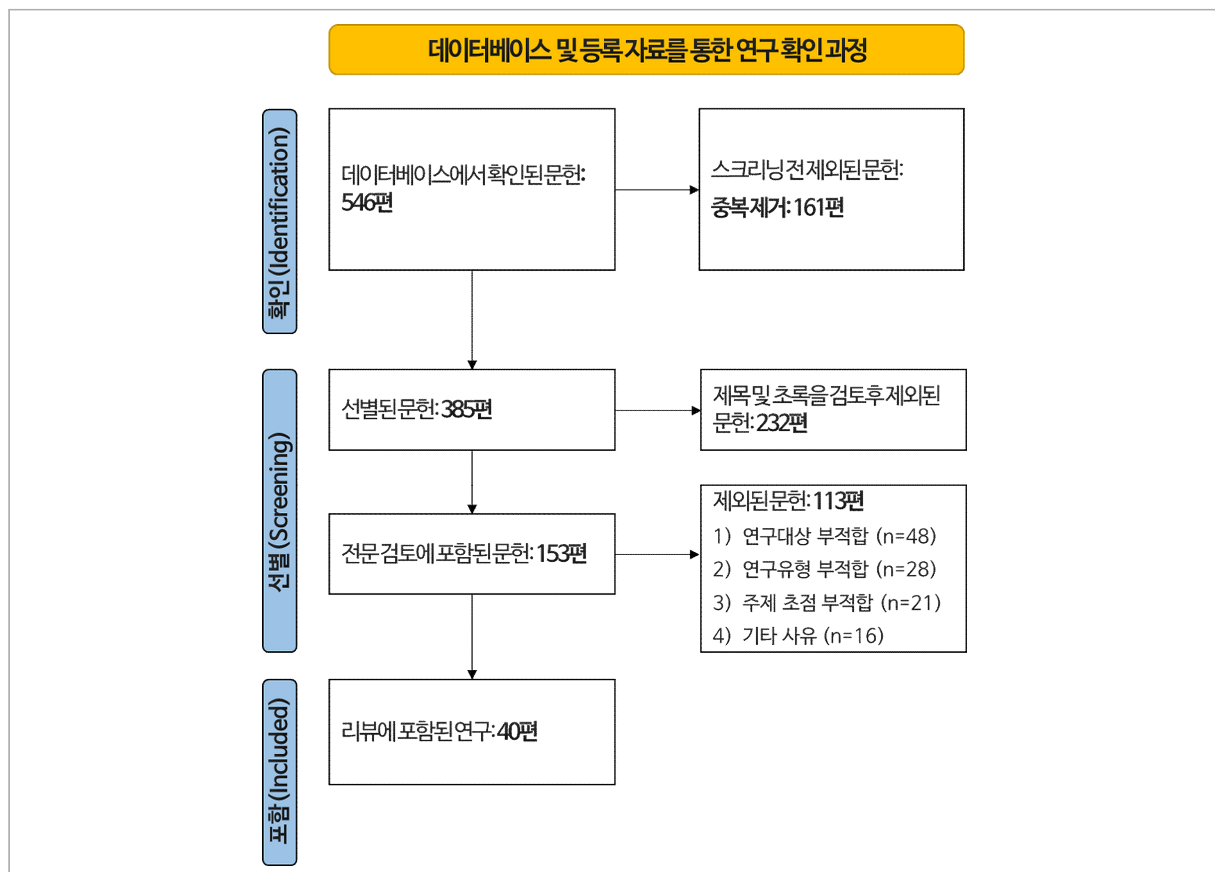
3단계(포화 확인 검색)에서는 2단계까지 도출된 CMO 패턴을 토대로, 특정 경로에서 반복성이 낮거나 상충하는 결과를 보고한 문헌을 보완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선정 문헌의 참고문헌 추적 방식을 병행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포착되지 않은 관련 연구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추가 탐색 이후 새로운 CMO 유형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시점을 이론적 포화의 기준으로 삼아 검색을 종료하였다.

문헌의 포함 기준은 연구대상이 자립준비청년이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가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연구, 자립·사회적응·사회적 지지·심리적·경제적 안정 등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증연구, 그리고 동료평가를 거친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리얼리스트 리뷰의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맥락-기제-결과 간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연구를 우선 선정하였다. 반면,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단순 현황 보고에 그친 실태조사, 학위논문·연구보고서·총설·사설 등 비심사 자료, 제도 및 정책 현황 기술에 국한된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헌 선정은 연구진 4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뒤 교차 검토 과정을 통해 합의하였다. 전체 선정 과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지침(Page et al., 2021)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초기 검색 단계에서 총 546편의 문헌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중복 문헌 161편을 제외한 385편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주제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232편을 제외하고 153편을 1차 선별하였다. 전문 검토 단계에서는 총 113편이 제외되었으며, 이는 제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되었다. 연구대상 부적합(일반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연구, n=48), 결과 중심 기술에 한정된 연구(단순 현황 보고 및 서술 연구, n=28), 핵심 주제와의 관련성이 낮은 연구(자립 및 사회적응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연구, n=21), 기타 사유(자료 유형 또는 분석 정보의 제한으로 CMO 해석이 어려운 경우, n=16)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헌은 맥락-기제-결과 간의 연계 구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40편의 문헌이 고찰대상에 포함되었고(그림 1), 최종 선정 문헌에는 발표 연도와 제1저자 성을 한글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이후 본문과 <표 1>에서 해당 번호를 인용하였다.

그림 1. 문헌 선정 과정



4. 데이터 추출 및 품질평가

선정된 40편의 문헌에 대해서는 저자와 발표 연도, 연구 수행 지역, 연구대상 특성, 보호유형, 연구 설계, 표본 수, 자료수집 방법, 개입 또는 프로그램의 개요, 적용된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이후 CMO 패턴을 식별하고 문헌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문헌의 품질 평가는 전통적인 연구 설계 중심의 질 평가 도구를 적용하기보다는, Pawson 외(2005)가 제안한 리얼리스트 리뷰의 품질평가 원칙에 따라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relevance)과 설명력(rigor)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즉, 개별 연구의 방법론적 완결성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해당 연구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과 해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헌은 경험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거나 CMO 패턴에 대한 해석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문헌은 핵심 CMO 패턴의 주요 근거보다는 특정 맥락이나 기제를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참고 근거로 활용하였다. 다만 정보의 풍부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문헌을 일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각 문헌이 제공하는 해석적 기여도의 수준에 따라 분석 과정에서 상대적 비중을 달리 반영하였다.

데이터 추출 및 품질 평가는 연구자 4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전체 문헌에 대해 교차 검토하였고, 연구자 간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먼저 불일치가 발생한 문헌에 대해 두 연구자가 각자의 판단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연구진이 합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검토한 후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의 연구자 간 일치율은 Cohen's $\kappa=0.83$ (불일치 건수: 7건/40건)이었고, 이는 높은 수준의 일치를 나타낸다(Landis & Koch, 1977).

5. 데이터 분석

고찰대상 문헌에 대한 분석은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각 문헌의 연구목적, 연구 수행 지역, 연구유형, 표본 수, 자료수집 방법, 개입 프로그램의 특성, 적용된 이론적 틀을 정리하여, 분석 대상 문헌의 전반적 경향과 연구 범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각 문헌에서 CMO 요소를 체계적으로 추출하였다. 분석 차원의 구분은 본 연구의 초기 프로그램 이론인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층위 구조에서 직접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Bronfenbrenner(1979)의 미시체계는 개인의 내적 자원과 심리적 특성을 포착하는 개인 차원으로, 중간체계는 가족·또래·멘토 등 직접적 대인관계를 다루는 관계(개인 간) 차원으로, 외체계 및 거시체계는 지역사회 자원과 제도·정책 구조를 포괄하는 제도·환경 차원으로 각각 대응시켰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중간체계를 가족·또래·멘토 등 직접적 대인관계로, 외체계를 지역사회 자원 및 제도적 환경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관계 경험과 구조적 조건이 분리된 분석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에서 추출된 CMO 요소가 어느 생태학적 층위에서 작동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MO 요소의 코딩은 아래의 판단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맥락(C)은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구조적·제도적 조건으로서, 연구 내에서 개입이나 자원의 배경 조건으로 명시적 또는 맥락적으로 제시된 경우만 코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보호 유형(시설·위탁·가정), 지역사회 자원의 편차, 정책 환경의 변화, 서비스 접근성 등을 포함하였다. 기제(M)는 특정 맥락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자원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며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심리적·행동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단순한 경험 기술이나 결과와 구분되지 않는 진술은 기제로 코딩하지 않았으며, 맥락 조건과의 연결이 연구 내에서 서술되거나 추론 가능한 경우만 코딩하였다. 결과(O)는 기제가 작동한 이후 자립 및 사회적응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긍정적 결과(예: 심리적 안정, 관계 형성, 생활 기반 안정)와 부정적 결과(예: 고립, 실업, 재입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코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은 분석 시작 전 5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파일럿 코딩을 실시하고, 불일치 사례를 검토하여 코딩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파일럿 코딩 단계에서의 연구자 간 일치율은 Cohen's $\kappa = 0.67$ 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후 본 코딩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체 40편에 대해 연구자 4인이 독립적으로 CMO를 코딩하였으며, 코딩 완료 후 교차 검토하였다. 총 153건의 CMO 코딩에 대한 연구자 간 일치율은 Cohen's $\kappa=0.78$ 로, 실질적 일치(substantial agreement) 수준에 해당한다(Landis & Koch, 1977). 불일치 사례는 제4절에서 기술한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하나의 문헌에서 복수 차원의 CMO가 동시에 도출된 경우에는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고, 각 CMO 요소에는 추출된 문헌 번호를 부여하여 차원별 CMO 패턴의 반복성과 분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출된 CMO 패턴의 연결 양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생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을 활용하였다. 생키 다이어그램은 맥락-기제-결과 간의 연결 관계를 방향성을 가진 흐름(flow)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기법으로, 동일한 연결이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될수록 연결선의 두께가 증가하도록 설계된다(Daniel & West-Mitchell, 2024). 본 연구에서는 각 문헌에서 확인된 C→M→O의 연쇄를 하나의 연결 단위로 코딩하고, 동일한 연결 조합이 보고된 문헌 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흐름의 두께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맥락이 다양한 기제로 확장되거나, 상이한 기제가 동일한 결과로 수렴되는 패턴, 그리고 차원을 넘나드는 CMO 연계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키 다이어그램은 R 프로그램의 networkD3 패키지를 활용하여 구현하였고, 시각화 결과는 연결 빈도에 기반한 상대적 강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화된 CMO 패턴을 프로그램 이론과 비교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도출된 CMO 패턴이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층위별 예측—특정 층위의 조건이 해당 층위 내 기제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사회적응 결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지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층위 간 연계 경로나, 이론적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증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층위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조 결과는 CMO 패턴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는 고찰 단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고찰에 포함된 연구들은 연구유형, 표본 규모, 연구대상 지역, 개입 경험, 이론적 틀 활용 측면에서 서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표 1). 주요 특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유형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가 30편(75.0%)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개인심층면접과 포커스그룹을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과 사회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양적 연구는 7편(17.5%)으로, 설문조사나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자립과 사회적응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혼합 연구와 실행 연구는 각각 2편(5.0%)과 1편(2.5%)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규모 역시 연구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질적 연구는 대체로 1~25명 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400명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을 조사하거나, 12,280명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립과 사회적응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등 비교적 대규모 자료를 다룬 사례도 확인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포함한 연구가 9편(22.5%),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17.5%),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12.5%)이었다. 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9편(47.5%)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이용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18편(45.0%)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경제교육, 자조모임, 시코드라마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22편(55.0%)은 특정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보다, 보호 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서의 일상 경험과 사회적응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론적 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10편(25.0%)에 그쳤다. 이 가운데 사회적 자본 이론은 5편(12.5%)에서

활용되었으며, 그 외에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Maslow, 1943), Mandelbaum(1973)의 생애사 분석틀, 사이코드라마 이론, Foyer 모형이 각각 1편(2.5%)씩 확인되었다. 다수의 연구(30편, 75.0%)는 특정 이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자립과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국내 자립준비청년 관련 연구는 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축적되었고, 일부 양적 및 혼합연구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와 이론적 틀을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다수 연구는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일상 경험과 적응 양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표 1. 고찰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지역	연구유형	표본 수	자료수집	개입 프로그램	이론적 틀
[1]정선옥(2015)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영향요인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양적	214	설문조사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2]김지선 외(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들의 자립준비 경험에 대한 이해	미기재	질적	6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3]정현주, 송사리(2019)	강원도자립통합지원 센터가 제공하는 자립지원서비스 현황과 욕구 확인	비수도권	혼합	133	설문조사, 심층면접	보호아동용 자립지원 프로그램	명시되지 않음
[4]강현주 외(2020)	청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이 인식한 자립의 의미와 역량 변화과정 탐색	미기재	질적	15	심층면접	온드림 청년사회 진출 사업 (청사진 프로그램)	명시되지 않음
[5]안희란, 이용교(2020)	자립지원교육의 개선방향과 요구탐색	미기재	질적	25	심층면접	자립지원 교육	명시되지 않음
[6]권봉목 외(2021)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비수도권	질적	3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7]권지성 외(2021)	자립지원사업이 자립준비청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탐색	미기재	질적	13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교육지원 사업	명시되지 않음
[8]이용교, 안희란 (2021a)	자립준비청년의 인간관계 양상 탐색	미기재	질적	25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9]이용교, 안희란 (2021b)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의 개선방향 탐색	미기재	질적	19	심층면접	자립지원 주거사업	명시되지 않음
[10]황종인, 김장희(202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과 사회적응과정에 대해 탐색	미기재	질적	8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지역	연구유형	표본 수	자료수집	개입 프로그램	이론적 틀
[11]김미영, 최정숙(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을 (주)브라더스키퍼 참여 경험 중심으로 탐색	수도권	질적	4	심층면접	일자리 제공 및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명시되지 않음
[12]김태한(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경험과 자립과정을 이해	수도권	질적	5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13]안태구 외(2022a)	자립형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입소 배경, 생활경험, 자립지원 방식 탐색	수도권	질적	6	심층면접	자립지원 주거사업	명시되지 않음
[14]안태구 외(2022b)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동기와 학업 중단 경험 탐색	미기재	질적	6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15]임주원 외(2022)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탐구	미기재	질적	8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직무교육, 인턴십, 관계형성)	명시되지 않음
[16]차유림 외(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와 자립경험을 탐색	미기재	질적	7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17]유설희 외(2022)	코로나19 시기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이해	미기재	질적	11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18]김지선, 주영선(2023)	자립준비청년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관련 영향요인 분석	수도권, 비수도권	양적	12,280	2차자료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19]이보나, 정익중(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공개 경험 탐색	수도권	질적	11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20]이민영 외(2023)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사회적응 과정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질적	16	심층면접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적 자본 이론
[21]장정호 외(2023)	자립준비청년의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가 자립수준에 미치는 영향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양적	194	온라인 설문조사	제시되지 않음	사회적 자본 이론
[22]조경진(2023)	자립준비청년의 사이코드라마 경험을 통해 자립과 사회적응 과정 탐색	미기재	질적	7	심층면접	사이코 드라마 워크숍 프로그램	사이코 드라마 이론
[23]박해선 외(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전반의 맥락 고찰	비수도권	혼합	50	텍스트 마이닝, 포커스그룹	제시되지 않음	사회적 자본 이론
[24]최서정, 신윤정(2023)	자립준비청년의 진로탐색	미기재	질적	9	포커스그룹	제시되지 않음	일의 심리학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지역	연구유형	표본 수	자료수집	개입 프로그램	이론적 틀
	과정에서의 사회적·심리적 어려움과 제약 탐색						이론
[25]홍나미 외(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 탐색	수도권	질적	7	포토보이스	자조모임 프로그램 (심리상담)	사회적 자본 이론
[26]김서현 외(2024)	자립준비청년 통합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조력한 전문 자원봉사자의 활동경험 이해	미기재	질적	5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통합자립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직업, 건강, 예술, 안전)	사회적 자본 이론
[27]김성경(2024)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 분석	비수도권	양적	428	설문조사	통합자립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사회기술교육, 진로교육)	명시되지 않음
[28]김예원, 황정하(2024)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과의 관계 경험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질적	7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29]김연옥(2024)	자립준비청년의 생애사를 통한 사회적 편견 속 삶의 구성과 적응 경험 탐색	미기재	질적	1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생애사 연구 분석틀 (Mandelbaum, 1973)
[30]박진경 외(2024)	자립준비청년의 성장 과정과 자립 후 생활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탐색	수도권	질적	6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31]장정은(2024)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생활 시간사용 분석	수도권	질적	4	심층면접, 시간사용 일지	제시되지 않음	매슬로우 욕구이론
[32]정선옥 외(2024)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자립지원사례관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하는지 탐색	미기재	실험	7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자립지원 사례관리	명시되지 않음
[33]정윤미, 강현아(2024)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적응 경험 탐색	미기재	양적	405	설문조사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34]이바름, 조현수(2024)	자립준비청년의 경제교육 경험과 요구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질적	6	포커스그룹	경제교육	명시되지 않음
[35]이정애 외(2024)	자립준비청년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와 자립준비도의 조절효과 분석	미기재	양적	508	2차자료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저자(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지역	연구유형	표본 수	자료수집	개입 프로그램	이론적 틀
[36]강현아(2025)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영역에 영향	수도권, 비수도권	양적	464	2차자료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37]김하은, 최낭영(2025)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탐색	비수도권	질적	11	심층면접	희망디딤돌 사업	Foyer 모델 (자립생활모델)
[38]이덕, 김고은(2025)	자립준비청년의 외상 후 성장을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질적	8	심층면접	제시되지 않음	명시되지 않음
[39]임옥희(2025)	민관기관 지원프로그램이 자립준비청년의 삶과 지역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 탐색	미기재	질적	24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민간기관 지원 프로그램	명시되지 않음
[40]정정호(2025)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례관리서비스의 특성과 어려움 탐색	수도권, 비수도권	질적	5	포커스그룹, 심층면접	사례관리 프로그램	명시되지 않음

2. 자립준비청년 사회적응의 차원별 맥락-기제-결과(CMO) 분석 결과

고찰대상 문헌을 분석한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특정 요인에 의해 단선적으로 결정되기보다 개인, 개인 간, 제도·환경의 세 차원에서 서로 다른 맥락과 기제가 병행하며 형성되는 복합 과정으로 나타났다. 도출한 차원별 CMO의 분포와 지지 문헌은 <표 2>에 제시하였고, 주요 CMO 패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개인 차원: 심리적 취약성의 극복과 내적 자원의 재구성

개인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 취약한 정신건강, 반복된 좌절 등 부정적인 초기 맥락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1-15, 18, 20, 21, 29, 32, 33, 35, 36, 38].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경험이 반드시 부적응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정서지원 활동, 자조모임과 같은 개입은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 강화, 목표지향성과 회복탄력성의 발휘, 내적 동기의 활성화, 사회적 존재감의 회복, 부정적 경험의 재해석과 전환과 같은 심리적 조절 기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4, 27-29, 31-39]. 이러한 내적 기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회복탄력성이 발휘되는 일상 유지, 자기효능감이 반영된 긍정적 행동 변화, 그리고 목표지향적 행동과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의 증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8, 20-24, 27, 29, 32-38].

2) 개인 간 차원: 관계적 공백의 극복과 신뢰 기반의 사회적 편입

개인 간 차원에서의 핵심 맥락은 가족원가족과의 단절 및 관계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와 네트워크 부족이었다[2, 5, 8, 12, 15, 18, 19, 21-25, 27-29, 34, 35, 38, 40]. 이러한 관계적 기반의 취약성 속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 또래 네트워크 형성 활동, 자조모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은 사회적 유대와 신뢰의 회복, 대인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전략의 습득, 관계 유지·활용 기술의 강화, 사회참여의 재개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2, 5, 8, 12, 15, 21, 25, 29, 35, 38, 40]. 이러한 기제가 활성화될 때 청년들은

과거의 관계적 상처를 딛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이 완화되고 협력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회가 확장되며, 궁극적으로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5, 8, 12, 15, 19, 21, 25, 29, 35, 38, 40].

3) 제도·환경 차원: 구조적 결핍에 대응하는 자원 연계와 생활 기반 통합

제도·환경 차원에서는 경제적 자원 부족과 주거 불안정, 제한된 교육·취업 기회, 정보 접근성 부족, 그리고 분절된 보호체계와 지원 서비스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제약하는 핵심 맥락으로 확인되었다 [1, 3, 4, 6, 9, 10, 13-18, 20, 24, 26, 27, 30-33, 36, 39, 40].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자립수당, 주거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통합사례관리와 같은 제도적 개입은 자원을 실제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1, 3, 4, 6, 9, 10, 13-15, 20, 24, 26, 30-32, 36, 39, 40]. 특히 맞춤형·통합 지원의 활용, 기술 및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계가 함께 작동할 때, 청년들은 단순한 자원 수혜를 넘어 자원을 조직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3, 4, 6, 9, 10, 13-15, 20, 24, 26, 30-32, 36, 39, 40]. 그 결과 안정적인 주거 및 경제 여건을 확보하고 취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3, 4, 6, 9, 10, 13, 14, 20, 24, 26, 28, 30-32, 36, 39, 40].

표 2. 고찰대상 문헌의 차원별 맥락-기제-결과(CMO) 분석 결과

차원	맥락 (context)	기제 (mechanism)	결과 (outcome)		
개인	취약한 정신건강과 좌절 경험 [1, 4, 6, 9, 13, 14, 20, 32, 33, 36]	심리적 안정·정서 회복 [1, 4, 6, 9, 14, 20, 32, 36]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1, 4, 6, 9, 14, 20, 23, 24, 32, 36]		
		자기효능감·자존감 강화 [2, 5, 8, 12, 15, 21, 29, 35, 38]			
	심리·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 경험 [2, 3, 5, 7, 8, 10, 11, 12, 15, 18, 21, 29, 33, 35, 38]	심리·정서 조절 및 자기개념 재구성	목표 지향성과 회복탄력성 발휘 [3, 7, 10, 16, 18, 27, 33, 37]	내면 역량 회복과 자기주도성 확립	
		내적 동기 활성화 [7, 10, 16, 18, 27, 33, 37]			
	사회적 존재감 회복 [19, 23, 28, 34]	부정적 경험의 재해석 전환 [11, 13, 17, 22, 24, 31, 39]	회복탄력성이 발휘되는 일상 유지 [3, 7, 10, 13, 16, 18, 27, 33, 37]		
개인 간	가족·원가족 단절과 관계 갈등 [2, 5, 8, 12, 15, 18, 21, 22, 24, 25, 28, 29, 35, 38, 40]	사회적 유대·신뢰 회복 [5, 8, 15, 21, 29, 35, 38]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관계망 형성 [2, 5, 8, 15, 21, 25, 29, 35, 38, 40]		
		대인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전략 [5, 8, 12, 15, 21, 25, 29, 35, 38]			
	사회적 지지망 부재와 네트워크 부족 [5, 8, 15, 19, 21, 23, 27, 29, 34, 35, 38]	사회적 관계 회복과 신뢰 재형성	관계 유지·활용 기술 습득 [8, 15, 21, 25, 29, 35, 38]	관계망 재건과 사회참여 확장	
		사회적 존재감 회복 [19, 23, 28, 34]	사회참여 재개 [2, 5, 8, 15, 21, 25, 29, 35, 38, 40]		
제도 및	제한된 교육·취업 기회와	환경·자원	생활 기반 안정화 [1, 4, 6, 9, 21, 25, 29, 35, 38, 40]	생활 기반	안정적 주거·경제 여건

차원	맥락 (context)	기제 (mechanism)	결과 (outcome)
환경	정보 접근성 부족 [1, 3, 6, 10, 13, 16, 24, 26, 30, 33]	14, 15, 20, 32, 36, 40]	확보 [1, 4, 6, 9, 14, 20, 32, 36, 40]
	단절적인 보호체계 지원 서비스 [6, 10, 13, 16, 18, 26, 30, 31, 33, 39, 40]	활용과 외부 압박 대응 맞춤형-통합 지원 활용 [3, 6, 10, 13, 24, 26, 30, 31, 39, 40] 기술 정보 활용 능력 향상 [6, 10, 13, 24, 26, 30, 31, 39, 40]	안정과 자원 접근성 향상 취업 지속과 직업역량 향상 [3, 6, 10, 13, 24, 26, 28, 30]
	경제적 자원 부족과 주거 불안정 [1, 4, 6, 9, 14, 15, 17, 20, 27, 32, 33, 36, 40]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계 [6, 10, 13, 15, 24, 26, 30, 31, 39, 40]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1, 4, 6, 9, 10, 13, 14, 20, 24, 26, 30, 31, 32, 36, 3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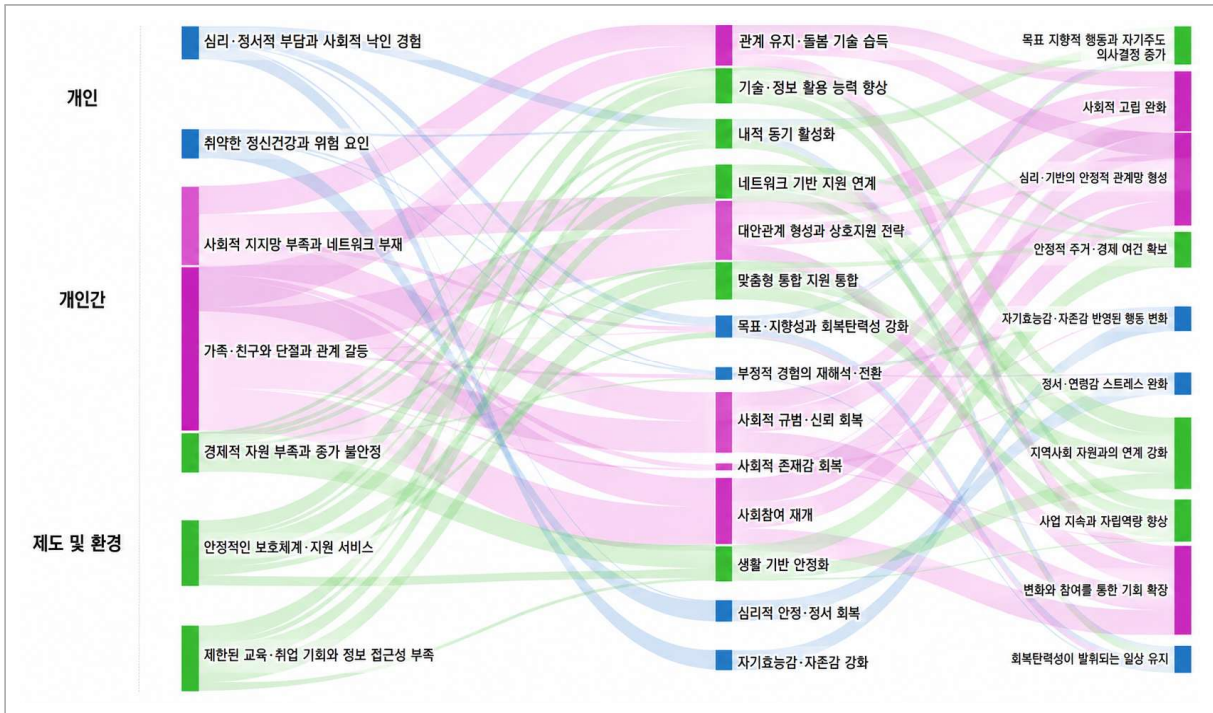
3. 자립준비청년 사회적응의 맥락(C)-기제(M)-결과(O) 흐름 패턴 및 차원 간 연계 분석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을 시각화한 결과, 개별 논문에 흩어져 있던 맥락-기제-결과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연계되는 궤적이 확인되었다(그림 2). 생키 다이어그램에서 연결선의 두께(thickness)와 폭(width)은 특정 맥락이 기제를 거쳐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가 고찰대상 문헌들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연계의 강도(strength)를 의미한다.

단일 차원 내부에서 가장 두꺼운 연결선을 형성하며 강한 연결 강도를 보인 흐름은 제도·환경 차원에서 나타났다. 전체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넓은 폭을 차지한 경로는 '경제적 자원 부족과 주거 불안정'이라는 맥락이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계' 기제를 거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이어지는 궤적으로, 이 경로는 40편 중 15편(37.5%)에서 지지되어 전체 흐름 중 가장 강한 연계 강도를 나타냈다. 개인 간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이 '대인관계 기술 습득'을 매개로 '사회적 고립 완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11편(27.5%)에서 확인되어 뚜렷한 두께를 보이며 빈번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환경적 결핍 극복을 넘어 청년 스스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획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개인 차원에서는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 경험'을 출발점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강화'를 거쳐 '자기주도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9편(22.5%)에서 지지되며 강한 연계성을 나타냈다. 특히 '정신건강 취약성'이 '심리적 안정'을 거쳐 '스트레스 완화'로 이어지거나, '회복탄력성 발휘'를 통해 '일상 유지'로 귀결되는 대안적 흐름도 비교적 두꺼운 선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가 반드시 부적응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보였다.

나아가 생키 다이어그램의 흐름 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 내의 연계를 넘어 차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굵은 교차 경로들이 확인되었다. 다이어그램에서 뚜렷한 폭을 띠며 나타난 궤적 중 하나는 거시적 제도가 미시적 안정을 견인하는 역방향 경로였다. 즉, '경제적 자원 부족과 주거 불안정'이라는 제도·환경 차원의 맥락이 '생활 기반 안정화' 기제를 매개로 개인 차원의 '정서 안정과 자기주도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8편(20.0%)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 간 차원의 '가족 단절과 지지망 부족'이 제도·환경 차원의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로 우회하여 이어지는 보완적 흐름 역시 11편(27.5%)에서 나타나 두꺼운 연결선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정서적 부담과 낙인 경험'이 개인 간 차원의 '사회참여 재개' 기제를 만나 '사회적 고립 완화'로 이어지거나 대인관계 신뢰 형성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10편(25.0%)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2. 자립준비청년 사회적응에 대한 맥락(C)-기제(M)-결과(O)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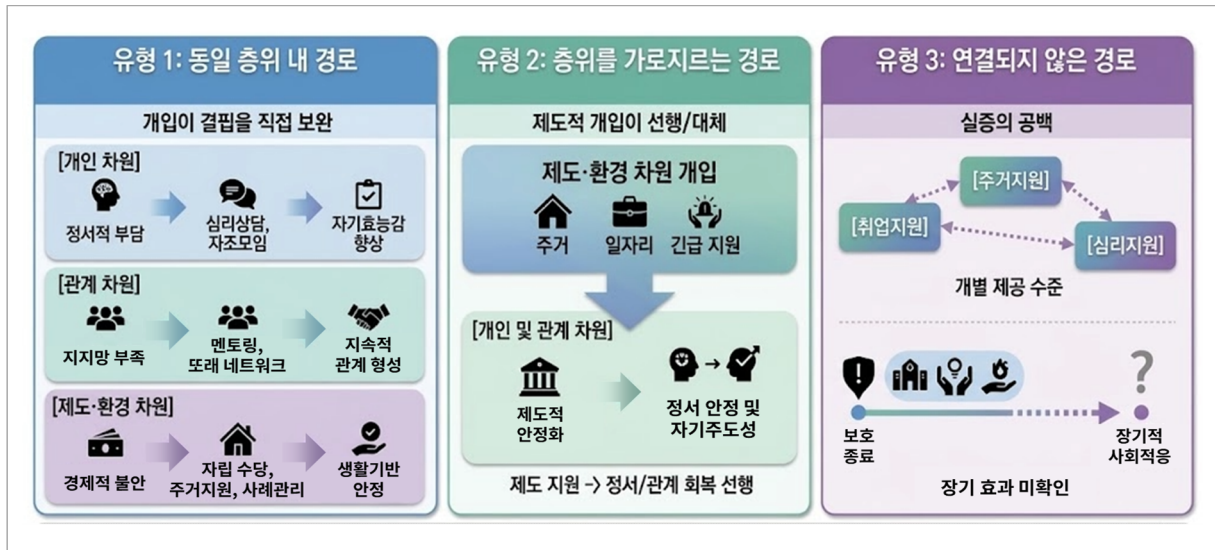
4. 프로그램 이론과의 종합 비교: 확인된 경로, 새롭게 드러난 패턴, 그리고 실증의 공백

도출한 40편의 CMO 패턴을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비교하여, 이론과의 정합성, 확장 경로, 그리고 실증적 공백을 검토하였다(그림 3). 생태학적 체계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에서는 각 생태학적 층위 내부에서 맥락이 기제를 활성화하고 결과로 이어지는 동일 층위 내 경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차원에서는 정서적 부담, 사회적 낙인, 정신건강 취약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심리상담, 정서지원 그룹, 자조모임 참여가 자기이해와 감정조절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자기효능감 강화와 심리적 안정 회복으로 이어졌다[1-24, 27-29, 31-39]. 개인 간 차원에서는 가족 및 원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멘토링, 동료 네트워크,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신뢰 형성과 관계 지속의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신뢰 기반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고립 완화로 이어졌다[2, 5, 8, 12, 15, 18, 19, 21-25, 27-29, 34, 35, 38, 40]. 제도·환경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부족, 주거 불안정, 서비스 분절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립수당, 주거 지원, 취업 지원, 통합사례관리가 자원 접근성과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안정적 주거 및 경제 여건 형성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로 이어졌다[1, 3, 4, 6, 9, 10, 13-18, 20, 24, 26-28, 30-33, 36, 39, 40].

그러나 생태학적 체계이론이 다루지 못한 층위 간 연결 경로도 확인되었다. 첫째, 경제적 불안과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는 맥락에서는 제도·환경 차원의 지원이 먼저 작동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기주도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역방향 경로가 나타났다. 즉, 거시적·제도적 조건의 개선이 개인 차원의 정서 안정과 자기조절을 선행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1, 4, 6, 9, 14, 20, 32, 36]. 둘째, 가족 해체와 사회적 지지 결핍이라는 관계 차원의 취약성 아래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관 네트워크, 통합사례관리가 관계 형성의 기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였다[6, 10, 13, 15, 24, 26, 30, 31, 39, 40]. 이는 개별 연구에서 단일 차원 효과로 분절적으로 제시되었던 개입들이 40편의 문헌을 통합적으로 대조할 때 비로소 차원 간 연결 구조를 갖는 경로로 드러남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경로는 이론적으로 중요함에도 실증적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합 개입 경로는 소수 연구에서만 부분적으로 보고되었고, 다수 연구에서는 주거지원, 취업지원, 심리지원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에 머물렀다[6, 10, 13, 16, 18, 26, 30, 31, 33, 39, 40]. 또한 보호 종료 이후 시간 흐름에 따라 개입 효과가 축적되거나 변화하는 과정은 40편의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단기 개입이 장기 사회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3. 프로그램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본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경로 유형



주. 본 그림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념적으로 구성하여 직접 작성한 도식이며, 생성 과정에서 AI 기반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음.

V. 논의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을 리얼리스트 리뷰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개인, 개인 간, 제도-환경 차원에서 맥락-기제-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응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불리한 맥락 속에서도 특정 기제가 작동할 경우 서로 다른 결과로 전개될 수 있는 조건부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갖는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향후 연구와 실천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하였다.

고찰대상 문헌은 질적-탐색적 접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표본 규모의 제한, 연구 설계의 이질성, 이론적 틀 활용의 제한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연구가 여전히 문제 제기와 경험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찰대상 문헌의 절반 정도가 연구대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이 지역별 자원 밀도, 제도 접근성, 주거 및 고용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존 연구는 이러한 공간적 맥락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해 왔다. 2018~2022년 시도별 보호종료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자립준비청년이 집중되어 있고 타 지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는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량과 민간 자원 연계 구조가 사회적응의 핵심 맥락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이상정 외, 2023).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역 맥락을

반영한 질적 탐색과 이론적 분석을 결합하는 혼합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개인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나, 자기 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기제로 작동할 경우 자기주도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내적 자원이 사회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매개로 기능했음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대처 이론(Lazarus & Folkman, 1984)과 욕구 위계 관점(Maslow, 1943)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보호 종료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 아동 청소년기부터의 상실 경험과 원가족 단절, 보호과정에서의 불안정한 관계 경험 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 이는 전환기 경험이 생애 전반의 축적된 조건 위에서 형성된다는 생애과정 관점(Elder, 1998)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이후의 적응 단계에 초점을 둔 주거 및 소득 중심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보호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이해 형성을 위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은 보호 종료 이후의 사후 개입이 아니라 보호과정 전반에 걸친 개입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단계에서부터 정기적인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보호 종료 이전에는 자기이해와 감정조절,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호 종료 이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와 심리상담, 또래 지지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속적 지원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정서적 안정이 자립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도록 정책 설계를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개인 간 차원에서는 가족 단절과 사회적 지지망 부족이라는 제약적 맥락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관계 회복과 신뢰 재형성, 사회참여 재개가 기제로 작동할 경우 신뢰 기반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고립 완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나타났다. 이는 관계 회복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와 신뢰,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자본 개념과 맞닿아 있고(Putnam, 2000), Schlossberg(1981)의 전환 이론이 제시한 상황-자기-지지 전략의 상호작용 역시 관계적 기제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멘토링이나 조직화된 활동과 같은 사회자본 기반 개입이 학업 성취, 위험행동 감소, 진로 기회 확장에 기여한 바 있다(Bruce & Bridgeland, 2014; Fredricks & Eccles, 2006). 다만 이러한 관계적 취약성 역시 보호 종료 이후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보호과정에서의 관계 단절 경험과 안정적 성인 관계의 부재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멘토링, 자조모임, 또래 네트워크는 보호 종료 이후의 보완적 개입이 아니라, 보호과정 단계에서부터 관계 경험을 축적하는 예방적 개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멘토링, 자조모임, 동료상담 등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도-환경 차원에서는 경제적 자원 부족, 주거 불안정, 교육취업 기회 제한, 단절적인 보호체계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은 개인의 결핍이라기보다 구조적 조건과 제도적 기대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Merton, 1968). 실제로 보호연장,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 완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 보호 전 개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보호종료 후 상담 사후관리·자원연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결합될 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완충,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진로·취업 준비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25). 특히 이러한 개입은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 멘토링, 금융·법률·취업 지원, 심리정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의 기반을 확장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5). 반대로 제도 접근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될 경우, 주거 및 경제 불안정은 심리적 위축과 사회참여 축소와 결합하며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Levitas et al., 2007).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자립지원 제도는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나, 고용 연계, 관계망 형성, 장기 사례관리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며(고수안, 2023; 이상정 외, 2023), 사회적응을 자원의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제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로 파악하는 역량 접근 역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Nussbaum, 2011).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에서 주거, 교육, 고용, 건강, 사후관리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공공과 민간 자원을 결합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OECD, 2022).

생키 다이어그램과 프로그램 이론 비교를 종합한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은 개별 요인이나 단일 프로그램의 효과로 환원되기보다, 서로 다른 수준의 맥락과 기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쇄적으로 결합하는 경로적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도-환경 차원의 개입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관계 형성의 선행 조건으로 작동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양상은 사회적응이 개인 내부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리얼리스트 리뷰의 관점에서 개별 연구가 주로 제시해 온 평균 효과나 단일 변수의 영향에서 나아가 기제의 순차성, 조건부성, 누적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awson et al., 2005; Wong et al., 2013). 즉, 동일한 개입이라도 어떤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이 심리적 회복과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되지만, 다른 청년에게는 관계적 지지나 정신건강 개입이 선행되어야 후속 개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단일 시점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과정적인 현상으로 재개념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자립지원 정책 역시 개별 사업의 단순한 확충이 아니라, 어떤 취약성을 우선 해소해야 다음 단계의 기제가 활성화되는지를 고려한 경로 기반 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보호연장, 사례관리, 심리상담, 주거취업, 진학의료 연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원을 병렬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예컨대 경제적·관계적 자원이 동시에 취약한 청년에게는 안정적 주거와 소득 지원을 우선 결합해 심리적 안정과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상담을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선행 개입으로 배치한 뒤 멘토링, 포래지지, 진로지원이 후속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연구는 독립생활기술 중심 프로그램만으로는 삶의 궤적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기 어렵고, 연장보호, 지속적 사례관리,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구조적·관계적 지원이 더 유망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hillips et al., 2024). 따라서 향후 정책 평가는 개별 프로그램의 단기 성과가 아니라, '주거 안정→심리적 안정→관계 유지 및 확장→교육·고용 지속'과 같은 경로 수준의 작동 여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구조적·관계적·심리적 요소가 시간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책 설계의 핵심 단위를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제를 연결하는 지원 경로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대상 문헌이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나 국제적 맥락에서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있다. 둘째,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가운데 소규모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아 결과의 재현성과 종단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CMO 구분 과정은 연구진의 해석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일부 사례에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개인, 관계, 제도·환경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CMO 패턴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기존의 파편적 연구 성과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사회적응을 단일 결과가 아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이 개인의 역량이나 지원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적응 경로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자료에 한정된 범위를 넘어 국제 비교와 종단 자료를 확장하고, 서로 다른 맥락과 기제의 결합이 어떠한 적응 경로를 형성하는지를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고,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도 주거·소득 지원에 심리적 안정, 관계 형성, 제도 접근성을 결합한 통합적 전환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진선은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학부생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연구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관련 문헌 검토, 자료 분석 및 원고 작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E-mail: dlwstjs28@gmail.com)

박예은은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학부생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연구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정리와 자료 수집 과정에 참여하였다.

(E-mail: park0102109@naver.com)

변호연은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학부생으로, 보건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연구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 검토와 연구 보조 활동에 참여하였다.

(E-mail: bhy0630@gmail.com)

최수환은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학부생으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연구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색과 자료 정리 과정에 참여하였다.

(E-mail: brettchoi0808@gmail.com)

김동하는 대진대학교 보건경영학과 조교수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건강도시, 활동적 생활, 질적 연구방법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건강, 건강 불평등, 지역사회 기반 건강지원체계에 관심을 두고 질적 혼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dhkim@daejin.ac.kr)

참고문헌

- 강든지. (2025).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연장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강현아. (2025). 가정위탁과 시설보호를 종료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자립지원서비스 이용과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74(1), 1-28.
- 강현주, 홍나미, 박주혜. (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강화 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3), 1-36.
- 고수안. (2023). 자립준비청년의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관계부처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366425
- 권봉목, 박희정, 이정량. (202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5), 2133-2144.
- 권지성, 김선숙, 정선욱, 조소연, 이정애, 안재진. (2021). 보호종료성인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A 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1), 105-145.
- 김미영, 최정숙. (2022).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적기업(주) 브라더스키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3-35.
- 김서현, 홍진주, 임주원. (2024). 자립준비청년 통합자립지원프로그램을 조력한 전문자원봉사자의 활동경험. *사회과학논집*, 55(2), 55-90.
- 김성경. (2024). 논리모델을 통한 희망디딤돌센터 시범사업의 분석-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6(3), 65-88.
- 김연옥. (2024). 한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독서치료연구*, 16(3), 131-157.
- 김예원, 황정하. (2024).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5(1), 61-84.
-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들. *한국아동복지학*, (62), 93-129.
- 김지선, 주영선. (2023). 자립준비청년 사회보장제도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7(4), 679-696.
- 김태한. (2022).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놀이치료연구*, 26(3), 37-57.
- 김하은, 최남영. (2025).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탐색: Foyer 모델 '희망디딤돌'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9(4), 1091-1106.
- 박신영, 진민진, 현명호. (2024). 자립준비청년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과 우울의 관계: 가정외보호 유형에 의해 조절된 단절-거절 영역 도식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32(3), 115-125. <https://doi.org/10.17547/kjsr.2024.32.3.115>
- 박진경, 김영혜, 우진영. (2024).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정의 어려움과 자립 후 삶의 적응에 대한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6(4), 111-140.
- 박해선, 김현옥, 김소형. (2023). 자립준비에 관한 두 개의 목소리-당사자와 실천가의 진술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5(4), 13-47.
- 보건복지부. (2025).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
- 아동권리보장원. (2012).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bid=0019&tag=&act=view&list_no=1481704
- 안태구, 길건혁, 마미나, 김주하, 주해란. (2022a).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방향: 자립형 그룹홈에서 생활한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1), 67-94.
- 안태구, 황소연, 김한나, 황경원, 주해란. (2022b). 대학 진학 후 학업 중단한 보호종료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9(2), 1-31.

- 안희란,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2), 61-84.
- 유설희, 한세영. (2022).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아이들: 코로나 19 시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 *인간발달연구*, 29(3), 133-162.
- 이덕, 김고은. (2025). 청소년기 시설에 입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외상 후 성장 경험. *청소년학연구*, 32(3), 421-449.
- 이민영, 유원선, 정재현, 최미희. (2023).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63, 209-235.
- 이바름, 조현수. (2024). 자립준비청년의 경제교육 경험과 요구에 관한 FGI 연구. *경제교육연구*, 31(3), 231-256.
- 이보나, 정익중. (2023). 시설 퇴소 청년의 자기공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54(2), 91-117.
- 이상정, 김수진, 이주연, 임선옥, 함석훈, 김지선, 김지연, 주영선, 하태정, 주하나. (2023).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교, 안희란. (2021a). 시설퇴소 청년의 인간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29-168.
- 이용교, 안희란. (2021b). 퇴소청년의 주거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주거양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9(3), 29-40.
- 이정애, 오세현, 민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보호요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3(4), 125-152.
- 임옥희. (2025). 민간기관의 지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민간기관 관리자를 중심으로. *산업진흥연구*, 10(2), 293-301.
- 임주원, 김서현, 홍진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145-186.
- 장정은. (2024).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시간사용분석에 기반한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1(2), 5-43.
- 장정호, 좌현숙, 김지선. (2023). 자립준비청년의 우울감이 자립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107-135.
- 정선옥. (2015).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191-214.
- 정선옥, 임세희, 이상정, 윤수경. (2024).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보건사회 연구*, 44(2), 281-310.
- 정윤미, 강현아. (2024). 자립준비청년의 물질적 결핍 경험이 정신건강을 매개로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6(3), 69-93.
- 정정호. (2025).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수행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7(1), 67-90.
- 정현주, 송사리. (2019).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강원지역 자립지원단 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4), 25-40.
- 조경진. (2023).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사이코드라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6(1), 33-50.
- 차유림, 민소영, 장혜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4(4), 79-99.
- 최보람, 이재림. (2024).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세계 속 실존 체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Human Ecology Research*, 62(2), 279-294. <https://doi.org/10.6115/her.2024.019>
- 최서정, 신윤정. (2023).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진로교육연구*, 36(3), 163-196.
- 황종인, 김장희. (202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11(1), 47-67.
- 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67-10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ce, M., & Bridgeland, J. (2014). *The mentoring effect: Young people's perspectives on the outcomes and availability of mentoring*. Civic Enterprises with Hart Research Associates.
- Courtney, M. E., Piliavin, I., Grogan-Kaylor, A., & Nesmith, A. (2001). Foster youth transitions to adulthood: A longitudinal view of youth leaving care. *Child Welfare, 80*(6), 685-717.
- Dale, H., Watson, L., & Adair, P. (2016). Looked after young people: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through an evidence-and theory-informed intervention. *Health Education Journal, 75*(7), 811-822. <https://doi.org/10.1177/0017896916628577>
- Daniel, D., & West-Mitchell, K. (2024). The Sankey diagram: An exploratory application of a data visualization tool. *Transfusion, 64*(6), 967-968. <https://doi.org/10.1111/trf.17803>
- Del Valle, J. F., Bravo, A., Alvarez, E., & Fernanz, A. (2008). Adult self-sufficiency and social adjustment in care leavers from children's homes: A long-term assessment. *Child & Family Social Work, 13*(1), 12-22. <https://doi.org/10.1111/j.1365-2206.2007.00510.x>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28.x>
- Fredricks, J. A., & Eccles, J. S. (2006). Is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beneficial outcom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698-713.
- Höjer, I., & Sjöblom, Y. (2014). Young people leaving care in Sweden. *Child & Family Social Work, 19*(1), 29-37. <https://doi.org/10.1111/j.1365-2206.2012.00886.x>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Task Force, Cabinet Office. <https://dera.ioe.ac.uk/id/eprint/6853/>
- Lynch, A., Alderson, H., Kerridge, G., Johnson, R., McGovern, R., Newlands, F., Smart, D., Harrop, C., & Currie, G. (2021).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n evaluation of innovation to support care leavers' transition.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16*(3), 214-232. <https://doi.org/10.1108/JCS-12-2020-0082>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https://doi.org/10.1086/201393>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https://doi.org/10.1037/h0054346>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arged ed.). Free Press.
- Nussbaum, M.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2). *Assisting Care Leavers: Time for Actio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939a9ec-en>.
-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Shamseer, L., Tetzlaff, J. M., Akl, E. A., Brennan, S. E., Chou, R., Glanville, J., Grimshaw, J. M., Hróbjartsson, A., Lalu, M. M., Li, T., Loder, E. W., Mayo-Wilson, E., McDonald, S., McGuinness, L. A., Stewart, L. A., Thomas, J., Tricco, A. C., Welch, V. A., Whiting, P.,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BMJ, 372*, Article n71. <https://doi.org/10.1136/bmj.n71>
- Pawson, R., Greenhalgh, T., Harvey, G., & Walshe, K. (2005). Realist review: A new method of systematic review designed for complex policy interventions.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10*(1_suppl), 21-34. <https://doi.org/10.1111/j.1365-2206.2005.00101.x>

0.1258/1355819054308530

- Pawson, R., & Tilley, N. (1997). *Realistic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Phillips, A. R., Halligan, S. L., Lavi, I., Macleod, J. A. A., Robinson, S., Wilkins, D., & Hiller, R. M. (2024). A scoping review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who have “aged out” of the child welfare system. *Trauma, Violence & Abuse, 25*(3), 1780–1798. <https://doi.org/10.1177/15248380231196107>
- Pinkerton, J. (2011). Constructing a global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cology of leaving out of home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12), 2412–2416.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1.08.017>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Schlossberg, N. K. (1981).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2), 2–18. <https://doi.org/10.1177/001100008100900202>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Stein, M. (2006). Research review: Young people leaving care. *Child & Family Social Work, 11*(3), 273–279. <https://doi.org/10.1111/j.1365-2206.2006.00439.x>
- Stein, M. (2012). *Young people leaving care: Supporting pathways to adulthoo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Stein, M., & Munro, E. R. (2008). *Young people's transitions from care to adulthood: Intern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van Breda, A. D., & Reuben, S. (2025). Theories used to explain care-leavers' journey out of care: A scoping review. *PLOS ONE, 20*(6), Article e032577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325776>
- Wong, G., Greenhalgh, T., Westhorp, G., Buckingham, J., & Pawson, R. (2013). RAMESES publication standards: Realist syntheses. *BMC Medicine, 11*, 21. <https://doi.org/10.1186/1741-7015-11-2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IER-CSDH-08.1>

How Do Care Leavers Adapt to Society after Leaving Care?: A Realist Review of Context–Mechanism–Outcome Pathways

Lee, Jinseon¹ | Park, Ye Eun¹ | Byeon, Ho Yeon¹ | Choi, Soo Hwan¹ | Kim, Dong Ha^{1*}

¹ Daej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Kim, Dong Ha
(dhkim@daejin.ac.kr)

Abstract

Upon turning 18, youth leaving out-of-home care ofte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without adequate housing, economic, relational, or psychological resources, increasing their vulnerability to health inequalities and social adaptation difficulti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sufficiently explained under what conditions interventions work, through which mechanisms, and how they lead to different adaptation outcomes. This study conducted a realist review to examine context–mechanism–outcome (CMO) relationships in the social adaptation of care leavers, using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1979) as the program theory. A total of 40 Korean studie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12 and June 2025 were analyzed. CMO elements we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environmental dimensions and visualized using a Sankey diagram. The findings showed that psychological recovery and self-efficacy promoted emotional stability, social support and restoration of trust facilitated relationship formation, and housing and economic stability together with resource linkage contributed to stable living conditions. In addition, stabilization at the institutional–environmental level promoted emotional stability and recovery of self-direction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network-based resource linkage compensated for relational deficits at the interpersonal level. In contrast, integrated interventions based on inter-agency collaboration were limited, and no longitudinal studies traced social adaptation pathways after care termi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 policies for care leavers should move beyond program-specific approaches towar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pathway-based designs that connect psychological, relational, housing, and employment support according to contextual conditions.

Keywords: Care Leavers, Transition Adjustment, Social Support, Independent Living Support Policy, Literature Review